

## 영어교사의 과업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과 활용\*

신성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Shin, SungEun & Kim, HaeDong. (2012). English teachers' views on and use of tasks. *Modern English Education*, 13(1), 211-23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glish teachers' use of tasks and views on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 within Korean ELT context. A total of 71 teachers participated in a questionnaire survey. Among them, 24 were working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47 were at private academy. And 35 were experienced and 36 were novice teachers with less than three years' teaching experie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admitted the effectiveness of TBLT as a way of English teaching because it could contribute to meaningful learning and develop learners'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They thought that TBLT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teaching speaking and listening rather than for reading and writing skills. Based on th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generate learners' meaningful interactions and active involvements in an English classroom more various teaching tasks should be designed and provided for teachers.

[Task-based Language Teaching/teachers' views/과업중심언어교육/교사의견]

### I. 서론

최근 영어 교육에서는 일방적인 교사의 강의나 단순 반복 암기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직접 의미 있는 맥락 안에서 발화를 해 보고,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업 및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과업중심언어교육(Task-Based Language Teaching)'이 주목을 받고 있

---

\* 이 연구는 제 1저자의 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이 연구는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제 1저자: 신성은, 교신저자: 김해동

다. 이에 따라 과업 기반 수업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에서 과업의 특징, 종류와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 하고 학습자의 선호도 및 효율성에 대하여 다루었지만 (김정렬, 권영선, 2004; 김해동, 2005; Berwick, 1990; Crookes & Rulon, 1985; Manheimer, 1995),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이 과업을 활용한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의 영어 교사들이 과업을 활용한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향후 교사들이 효율적이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업 기반 중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가에 관해 교사들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영어 교육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가치를 지닌다.

구체적인 연구 초점으로는 응답에 참여한 우리나라의 영어교사들이 다양한 과업의 종류 중, 어떠한 유형의 과업을 선호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과업 수업 시 모둠 구성이나, 학생들의 언어 능력, 흥미 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등의 여러 가지 언어 기능 중, 어떠한 영역에 과업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 하여 보기로 한다. 이어서, 교사들이 과업 활용 시, 어떠한 측면이 언어 교육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고, 학생들에게 과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자 할 때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과업에 대한 인식과 실제 활용 현황,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과업 활용 수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교사집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의견을 비교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집단을 공교육 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사교육 기관인 영어 전문 학원 등에 근무하는 교사로 구분하고, 영어 교육 경력에 따라 초임자와 경력자로 구분함으로써, 각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교사 개인차에 대한 본 연구는, 교사 양성 혹은 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앞으로 더욱 활발한 과업의 개발 및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이곳에서는 영어 교사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과업에 대한 문헌상의 정의, 효과, 과업의 여러 유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년에 따라 사용되는 과업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연구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문헌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명료화 하기로 한다.

## 1. 과업의 정의 및 유형

영어 교육에 있어 과업에 관한 많은 정의가 내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과업의 의미와 혼동하기도 하고(Nunan, 1989) 또는 수업시간에 하는 문법 연습 문제 등의 단순한 활동과 실습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하지만(Willis, 1996), 과업이 영어 교육에서 갖는 진정한 의미는 다음의 특징들에서 드러난다.

Skehan(1996)은 과업의 특징에 대하여 유의미한 활동(meaningful activities)이 중심이 되고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 사용과 유사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Willis(1996)는 과업이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를 사용하여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Nunan(1989)은 의사소통적인 과업을 학습자가 언어형태 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어 목표 언어로 이해하고, 조작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산출해 내는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다. Richards와 Rogers(2001)는 보다 구체적으로 과업을 분류했는데, 퍼즐 맞추기, 지도를 보고 길을 가르쳐주기, 전화로 예약하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쓰기, 설명서를 읽고 장난감 조립하기 등이 과업의 구체적인 예이다. 이들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실생활과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언어학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llis(2003)의 경우 과업이란 실제와 유사한 의미 있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생들이 목표어를 사용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과업 기반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서도 문헌상 많은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Willis(1996)는 과업 기반 학습의 효과로 기존 영어 수업에서 배경과 맥락의 고려 없이 교과서 영어를 기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과 달리, 학생들이 실제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을 들었다. 한편, Harmer(2001)는 과업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완기(2001)는 과업중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단일 문장 수준의 표현을 단순히 외워서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유의미한 발화를 하게 되고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여 서로 의미를 교섭하고 전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큰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과업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는 실제 삶에서 우리가 부딪치는 문제, 혹은 상황들을 과업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목표 언어를 사용해서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지도록 해야 하고, 목표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인지구조 속 언어적 지식과, 교사가 제공하는 언어 내, 외적 도움, 또한 동료 혹은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스

스로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Omaggio, 1993).

과업에 대한 정의에 이어, 본 연구를 위하여서는 학자들이 분류한 과업의 유형들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학자들이 과업 유형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양한 과업이 수업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습자가 선호하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과업 활용의 효용성을 추구하도록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과업 유형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에 제시되는 과업의 유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Prabhu (1987)는 과업의 유형 중 의사소통 활동의 유형을 정보격차활동(Information-gap activity), 의견격차활동(Opinion-gap activity), 추리격차활동(Reasoning-gap activity)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과업들은 모두 상대방과 진정성을 띤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한다. Littlewood(1981)는 과업의 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과 사회적 의사소통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Brown (2001)은 과업을 게임, 역할극 및 가상활동, 드라마, 프로젝트, 면접,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정보차이, 직소(Jigsaw), 문제 해결하기 및 의사결정하기, 의견 교환하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Willis(1996)는 주요 과업의 유형을 열거하기, 순서 매기기와 분류하기, 비교하기, 문제해결하기, 개인적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기타 창의적 과업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헌상의 유형에 근거하여 과업 기반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업 활동들을 교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영어 교사용 자료들에는 열거하기, 목록 만들기, 비교하기, 의사결정하기, 묘사하기, 정보 격차 활동, 의견 교환, 정보 찾기, 연결하기, 완성하기, 게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영예와 이운(2000)은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업에 대하여 자기소개하기, 초대카드 만들기, 만화 완성하기, 엽서 쓰기, 제스처 활동, 암호 만들고 풀기, 숨은 그림 찾기, 그림 사전 꾸미기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언들은 주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선택을 위하여 다양한 과업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현장 반응, 특히 교사의 선호도 정도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언한 과업들 중 일부는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

## 2. 관련 선행 연구: 교육과정별

과업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도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곳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과업의 유형 선택에 관한 국내 현장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과업 유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반응에 기초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상당 수 실행된 바 있다. 이는 아마도 초등학교 영어 교과의 교육과정이 보다 활동 중심적이며, 또한 초

등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더욱 더 부여하기 위해 보다 과업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황미정과 차경애(2006)가 실행한 협동학습이 초등학생의 듣기,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야기 엮기, 역할 놀이, 직소, 비교하기 등의 과업을 통한 협동학습이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혜경과 이재현(200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격차 활동 과업, 정보수집 활동 과업 등을 진행한 결과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흥미도 및 말하기의 자신감 면에서도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과업중심 학습이 언어의 네 기능에 모두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 현황은, 중등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과업을 활용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중학생과 관련된 연구로는 B.-Y. Kim(2006)이 실행한 교과서의 과제 유형 분석이 있다. 연구자는 과거 중학교 교과서 대부분의 과업활동이 비의사소통적이고 복잡성이나 구체성을 띄지 않으며, 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단순한 연습 문제나 빈 칸 채우기 혹은 그림 보고 말하기 등 상호작용의 성격이 약한 과업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해동(2005)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특정한 답이 있는 폐쇄형과업보다 자신들의 인지 수준에 적절한 개방형 과업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M. Park(2004)의 연구는 과업활동과 학습자간의 발화 내지 상호작용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는 정확성과 유창성 측면에서 발화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업은 목표 언어에 대해 보다 집중적이며, 구조적이고, 심사숙고를 거쳐 선정된 과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장 교사의 반응을 포함한 연구로는, 태국에서 과업 중심의 영어 수업에 대한 교사와 대학생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McDonough & Chaikitmongkol, 2007)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의 독립심, 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력과 책임감이 과업 기반 수업 이후에 상당히 증가했음을 교사의 반응을 포함하여 분석 보고 하고 있다. 교사들이 주목한 바는, 기존의 교사위주의 수업과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식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처음에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대해 우려감을 표현했으나, 과업중심 활동 후 오히려 과업중심활동에서 사용한 다양한 기법들을 다른 과목 학습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록 학습자가 사용한 과업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이와 같이 과업의 유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현장 학습자 및 교사의 반응에 기초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과업 중심 학습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중, 고등영어 수업에서 과업 활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업 중심 수업의 특징이나,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영어 교사

들이 갖는 과업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과, 활용 현황,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결국, 이미 과업 중심 수업의 효과가 여러모로 입증된 상황에서, 과업을 선정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교사들이 과업 기반 수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파악한다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교사 개인차에 대하여서도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공교육과 사교육 현장을 함께 고려하며 경력자와 초임자인 교사의 반응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장의 교사나 교육과정 입안자들에게 참고 가능한 정보를 보다 풍요롭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우리나라 영어 현직 교사들의 과업 기반 수업 활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약 6개월에 걸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의 영어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선정 방식은 편의 샘플 선정 방식을 취하였으나, 교육 기관 선정 시 과업 기반 수업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연구의 특성 상 과업 기반 수업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의 교사들에게는 설문 조사의 의미가 없으므로, 공교육 기관 교사 중에서도 과업 기반 수업 활용 경험이 있는 교사와, 사교육 기관 에서는 입시와 시험 위주의 학원 보다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가르치는 영어 전문 학원이나 영어 회화 학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 교사는 일차적으로 이들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지인을 통하여 확보하였고, 이들 중 설문 참여 의향을 보인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 의향을 보인 교사는 과업기반 수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이었다. 입시학원과 과외, 공부방에서 근무하고 교사들은 특성상 과업 기반 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본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입시에서 활용되는 영어 면접이나 토론 등의 말하기 중심 과업을 수업에 직접 활용한 교사들이었다. 설문에 최종 응답한 교사는 총 71명(응답율 71%)으로, 이들 중 초등학교 교사 4명, 중, 고등학교 교사 20명, 영어 전문 학원 강사 19명, 영어 입시학원 강사 8명, 과외, 공부방 교사가 20명이었다. 즉, 공교육 교사는 24명으로 응답자의 34%였으며 사교육 교사가 47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력 분포를 보면 6개월 미만인 9명, 6개월-1년미만이 6명, 1년이상-3년미만이 20명, 3년이상-5년미만이 12명, 5년이상인 24명에 이르렀다. 즉, 초임자(3년 미만의 교육경력의 교사)가 35명 49%, 경력자(3년 이상 교육 경력의 교사)가 51%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경력과 교육기관에서 재직중인 교사 집단의 의견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2. 설문지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총 4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지 실행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에 응답을 요청하였다. 응답 소요시간은 15-20분 내외였다. 다음의 표 1은 간략한 설문의 내용과 항목 수 그리고 문항 신뢰도를 보고 하고 있다. 문항신뢰도가 보고되는 영역은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 = 절대 아니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아주 그렇다)에 응답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제 사용 정도에 대한 질문은 빈도의 정도를 5점 척도(1 = 거의 사용 안 함, 2 = 가끔, 3 = 보통, 4 = 자주, 5 = 매우 자주)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별 문항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설문지 구성

설문 조사 내용	문항수	문항 신뢰도
개인정보: 근무 교육기관과 교육경력	2	-
과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현황	2	-
과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인식	5	.29
과업 활용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언어 기능 영역	6	.63
과업의 종류 별로 실제 사용하는 정도	7	.76
과업 활용 시 이상적인 집단의 크기	3	.32
과업 활용 시 학생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	5	.68
학년별, 언어 수준 별에 따른 과업 활용 효과의 차이	6	.41
과업 활동 실현이 어려운 이유	11	.63
기타의견 및 제언 (개방형 질문)	2	-
총 = 49		평균 = .53

설문구성에 있어 동료 경력 교사 4명의 내용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영어 교육과 대학 교수의 검토를 거쳤다. 검토 시에 1개 문항에 2개의 연관된 개념이 있는 문항 들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 되었다. 예를 들어 ‘과업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것 같은 영역은 듣기이다’같은 경우가 그러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문항 구성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기, 쓰기, 읽기 등에 질문이 된다는 점, 결과 분석시 문항 간 비교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

어 제한점을 고려하면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항이 전반적으로 많아서 문항을 가능하면 축소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응답자들이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 집단이기에 다수의 비슷한 문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응답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설문지 문항 신뢰도 검사 결과 복수의 개념이 포함된 문항이 다수 있는 ‘과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인식’ 영역의 경우 예상대로 낮은 문항 신뢰도를 보였다. 더불어 관련 문항수가 3개인 ‘과업 활용 시 이상적인 집단의 크기’에 대한 문항 신뢰도도 낮은 편이었다. 이들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문항 수가 작은 까닭에 문항 신뢰도가 낮은 것이었으며, 이점을 결과 분석 시에 고려하였다. 그러나 설문지 전체 평균 문항 신뢰도가 .52로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중급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 3. 분석 방법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SPSS for Windows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 하였다. 설문 항목들이 명목척도가 아닌 5점 등간 척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항목들간의 응답 정도 비교가 분석의 초점이었기에 개별 문항의 응답 항목에 대한 빈도수 분석보다는 여러 문항간 평균값을 활용한 비교 분석을 주로 시도하였다. 교사 집단 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추리 검정기법으로 독립  $t$ -검정을 시행하였다. 교사들의 응답은 종속변수로 교사들의 교육기관(공교육, 사교육)과 경력(경력자, 초임자)에 따른 개인 변인은 독립변수로 간주하였다. 개방형 질문인 설문의 48번과 49번은 정량적 결과에 대한 분석 시에 관련 정성적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정성적 결과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이곳에는 설문 결과 제시와 이에 따른 논의를 하기로 한다. 설문결과는 주제별로 연계된 문항들의 평균값 순위로 도표상에 제시하고, 지면의 제약상 추리 검정 결과도 함께 보고하기로 한다. 내용상 교사들이 과업을 사용하는 현황을 우선 보고 하고, 과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 뒤이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과업의 활용 현황

다음의 표 2는 응답에 참여한 교사들이 어떠한 종류의 과업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과업의 종류 별로 실제 사용하는 정도

순위	문항 내용	평균	초임 교사	경력 교사	t	p	공교육	사교육	t	p
1	청각자료활동	3.28	3.23	3.33	-.45	.64	3.21	3.32	-.45	.64
2	과제부여	2.90	2.80	3.00	-.74	.46	2.75	2.98	-.80	.42
3	게임	2.70	2.86	2.53	-1.20	.23	2.58	2.77	-.68	.49
4	시각자료활동	2.69	2.57	2.81	-1.00	.31	2.83	2.62	.87	.38
5	실제생활자료	2.42	2.34	2.50	-.57	.56	2.54	2.36	.62	.53
6	정보교환, 토론 등 활동	2.34	2.25	2.25	.66	.51	2.29	2.36	-.24	.80

전체 응답 교사들의 과업을 사용하는 정도에 대한 순위를 보면 청각자료(Audio tapes, CD, Chant, Songs, Radio 등)를 활용한 활동 - 과제물(일기쓰기, 이메일 보내기, 빈 칸 채우기, 퀴즈 등)부여 - 다양한 게임활용 - 시각적 자료(TV, 그림, 차트, 인터넷, 동영상 등)를 활용한 활동 - 실생활 자료(Authentic materials: 기차시간표, 초대장, 공연 티켓, 쇼핑안내서, 신문 등)를 활용한 활동 - 의사소통 중심의 정보교환, 정보격차, 토론, 발표, 프로젝트 등의 활동의 순서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응답 교사 집단별로 보면 경력 교사와 사교육중사 교사 집단의 경우 이러한 사용빈도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임교사는 게임 활동을 과제물 부여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교육 교사들은 시각 자료를 청각 자료에 바로 뒤이어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개별 활동에 대한 집단간의 응답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는 주목되지 않았다.

위의 여러 가지 유형의 과업 중 교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하길 희망하는 과업에 대한 응답 빈도 반응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과업의 종류 별로 사용하고 싶은 정도 (응답 빈도)

순위	항목	총빈도	초임 교사	%	경력 교사	%	공교육 %	사교육 %
1	정보교환, 토론 등 활동	26	14	40	12	34	8	33
2	실제생활자료	18	9	26	9	26	10	42
3	시각자료활동	11	5	14	6	17	2	9
4	청각자료활동	9	5	14	4	11	3	12
5	게임	4	2	6	2	6	1	4
6	과제부여	2	0	0	2	6	0	0

실제 활용 현황과는 달리, 교사들은 사용 순위에서 6순위와 5순위를 차지하였던 정보교환, 토론 등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과 실생활 자료 사용을 앞으로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용에서는 2순위를 차지하였던 과제 부여 활동은 가장 사용하고 싶지 않은 과업 유형으로 응답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디오, CD, 노래 등의 청각 자료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이와 같은 청각 자료를 활용한 과업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과업 기반 수업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이 마지막 6순위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볼 때 공교육기관의 교사일수록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을 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교육 교사들은 가장 희망하는 과제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는 설문지의 주관식 문항에서 많은 초중고 교사들이 학급당 학생 인원수가 과업을 진행하기에 너무 많다는 점과, 제한된 진도와 시간 내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들고 있었다. 셋째, 실생활 자료를 활용한 활동에 대하여 응답 순위가 낮은 이유는, 해당 자료를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자료 제시의 한계 등을 교사들은 거론 하였다. 넷째, 공교육의 교사들이 사교육의 교사에 비하여 시각 자료를 보다 활용해서 유의미한 과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는, 사교육 교사들이 인터넷 동영상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수업시간 내 교사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타인들에게 보일까 하여 활용을 적게 한 점이 응답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와의 대화에서 주목되었다.

다음의 표 4는 과업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찾는 활동과 실제로 과업활동을 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

과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현황

순위	문항 내용	평균	초임 교사	경력 교사	<i>t</i>	<i>p</i>	공교육	사교육	<i>t</i>	<i>p</i>
1	다양하게 자료를 찾음	3.51	3.57	3.44	.66	.51	3.46	3.53	-.36	.72
2	다양한 활동을 실행함	2.93	2.94	2.92	.14	.88	2.92	2.94	-.09	.92

응답결과를 보면, 과업 활동을 위한 준비가 실제 과업의 실행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교사 집단간에 있어서 유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교사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제 활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수업을 실행하는 것 보다 과업 중심의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작업에 보다 치중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교사들에게 과업 중심의 수업 경험을 보다 많이 축적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하고 손쉽게 접근하기 쉬운 과업 자료들을 시스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과업의 활용에 대한 인식

다음의 표 5는 과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응답 교사들의 인식을 평균값 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표 5**  
과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순위	문항 내용	평균	초임 교사	경력 교사	t	p	공교육	사교육	t	p
1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4.18	4.11	4.25	-.83	.40	4.04	4.26	1.30	.19
2	여건이 되지 않음	3.68	3.60	3.75	-.83	.40	3.67	3.68	-.08	.92
3	지도에 한계가 있음	3.55	3.49	3.61	-.66	.50	3.67	3.49	.98	.32
4	수업현장과 동떨어짐	3.13	3.06	3.19	-.64	.52	3.08	3.15	-.29	.77
5	활동시간이 낭비라고 봄	2.20	2.14	2.25	-.53	.59	2.54	2.02	2.31	.02*

\* =  $p < .05$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과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효과적이라고 보는 긍정적인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는 1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인 항목인 과업이 수업현장과 동떨어졌다고 보거나 활동시간이 낭비라고 보는 항목은 동의하는 정도가 4위와 5위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과업을 실행하기에 여건이 미흡하거나 교사가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다소 비판적인 항목은 2위와 3위로 응답되었다. 집단간에 있어서 순위는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과제 활동시간이 낭비라고 보는 항목에 있어서는 공교육의 교사들이 사교육의 교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혹자는 과업 위주의 수업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응답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이 과업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점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 각종 여건과 다수의 활용 자료만 갖춰진다면 더욱 활발하게 과업 기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공교육의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과업을 실시하는 것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를 줄게 하고, 참여도도 낮아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교육의 교사 보다 더 높았다. 이는 예상과 달리 공교육의 교사들이 교사 위주의 수업에 상대적으로 보다 치중하고 있다는 의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교육교사를 대상으로 과업을

융통성 있게 수업의 적절한 부분에 배치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사 교육이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의 표 6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등의 언어 기능 별로 어떠한 기능에서 과업의 필요 및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6**  
과업 활용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언어 기능 영역

순위	문항 내용	평균	초임 교사	경력 교사	<i>t</i>	<i>p</i>	공교육	사교육	<i>t</i>	<i>p</i>
1	말하기	4.07	4.03	4.11	-.40	.68	4.13	4.04	.38	.70
2	듣기	3.56	3.54	3.58	-.19	.84	3.63	3.53	.42	.67
3	쓰기	3.28	3.09	3.47	-1.81	.07	3.29	3.28	.06	.94
4	읽기	3.25	3.11	3.39	-1.24	.21	3.33	3.21	.51	.61
5	문법	3.01	2.80	3.22	-1.97	.05	3.08	2.98	.45	.65

응답 결과에서, 전체 순위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문법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 순위에 있어서 초임교사와 공교육교사는 쓰기-읽기의 순서가 아니라 읽기-쓰기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또한, 초임교사보다 경력교사 집단에서, 문법 영역에 과업 활용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의 될 수 있겠다. 첫째, 말하기의 경우, 실생활과 유사한 맥락에서 직접 의사소통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말하기 과업 활용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업 활용 수업의 단점 중 하나가 언어의 정확성 증진 면이었던 것으로 볼 때, 특히 쓰기 관련 과업 활용에서 초임교사들과 공교육교사들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교사가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맞고 흥미를 가지고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과업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교사 및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쓰기 과제 활동 자료를 다수 제공하거나 심화된 교사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읽기 영역에서도 교사가 읽고 해석해주는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과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인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음을 본 설문 결과는 시사한다. 넷째, 문법 영역의 경우 예상대로 부정적인 응답 경향이 드러났다. 과업 활용 수업 시 언어 형태나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주어진 과업을 통해서 언어의 규칙성과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 스스로 반복적인 규칙 패턴을 찾아가도록 하는 귀납식 수업(Thornbury, 1999) 이 자주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과업을 활용해서 귀납적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볼 때, 문법 영역에서도 앞으로 과업을 더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문법 수업의 효과에 대해 한계를 보다 더 느끼고 있는 경력자 교사일수록 과업 활용에 대해 초임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문법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에게는 과업 기반 수업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업 기반 수업에서 문법을 교육할 수 있는 형식 초점(focus on forms)수업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라고 하겠다.

아래의 표 7은 위의 5가지 영역 중 과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응답 빈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7**  
언어기능영역에 과업을 사용하고 싶은 정도(응답 빈도)

순위	항목	총빈도	초임교사	%	경력교사	%	공교육	%	사교육	%
1	말하기	52	25	71	27	75	13	54	39	83
2	읽기	8	6	17	2	5	5	21	3	7
3	쓰기	6	1	3	5	14	4	17	2	4
4	듣기	3	2	6	1	3	1	4	2	4
5	문법	2	1	3	1	3	1	4	1	2

전체 선호도 순위는 말하기-읽기-쓰기-듣기-문법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 간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단, 경력자 집단에서는 말하기-쓰기-읽기-듣기-문법 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자 일수록 말하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산출(Language Production) 영역 지도에 자신을 가지고 이들 영역 관련 과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체 과업 활동 선호도 조사의 결과, 과업이 학습자가 직접 유의미한 맥락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말하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보고 많은 교사들이 응답하였음을 주목 할 수 있다. 하지만, 말하기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쏠림 현상이 반드시 바람 직 하더라도 보기는 힘들다. 향후 말하기 영역뿐만 아니라 읽기나 쓰기와 같은 타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과업을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기능 통합적(skill-integrated)지도 및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과연 교사들은 과업을 사용하면 어떠한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들의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과업 활용 시 학생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

순위	문항 내용	평균	초임 교사	경력 교사	t	p	공교육	사교육	t	p
1	유의미한 학습 가능	4.13	4.14	4.11	.21	.82	4.08	4.15	-.42	.67
2	유창성 증진	3.90	4.00	3.81	1.34	.18	3.79	3.96	1.07	.28
3	흥미 유발	3.90	3.86	3.94	-.47	.64	3.83	3.94	-.52	.60
4	경쟁 심리로 동기 증진	3.39	3.29	3.50	-1.03	.30	3.42	3.38	.18	.87
5	정확성 증진	3.35	3.49	3.22	1.34	.18	3.00	3.53	2.66	.01*

\* =  $p < .05$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효과 - 유창성 증진 - 흥미유발 - 경쟁 효과로 동기 증진 - 정확성 증진의 순으로 과업의 효과적인 면을 지적했다. 경력교사 및 공교육의 교사일수록 초임교사나 사교육교사에 비하여 정의적인 측면의 흥미 증진의 순위를 언어적인 측면의 유창성 증진 보다 높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응답 하였다. 가장 낮은 효과가 있다라고 간주된 정확성 증진의 측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날 정도로 사교육의 교사들이 공교육의 교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 값을 부여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 준다. 첫째,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정의적 측면의 동기 증진과 흥미유발 측면에서 과업 활용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적인 측면이 언어 발달에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다행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응답 교사들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과업을 활용하는 것이 유창성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기존의 교과서나 탈 맥락화된 활동을 사용하는 것 보다, 과업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업 기반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교육 효과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을 추측 가능하게 하여 준다. 셋째, 과업 기반 수업의 효과 중, 공교육 교사들 보다 사교육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는 문항에 더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공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과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고 동료 간 피드백을 제공 하는 등의 평가와 관련된 조처 등을 교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표 9는 과업 기반 수업이 저학년-고학년 중 어떠한 학습자에게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이다

**표 9**  
학년별 과업 활용 효과의 차이

순위	문항 내용	평균	초임 교사	경력 교사	t	p	공교육	사교육	t	p
1	저학년에 효과가 크다	3.75	3.71	3.78	-.27	.78	3.75	3.74	.02	.98
2	고학년에 효과가 크다	3.25	3.14	3.36	-.96	.33	3.38	3.19	.76	.44

설문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을 비롯한 저학년 학생에게 과업이 보다 유효할 것이라고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이점은 영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부담이 큰 중학교에서 과업을 하는 것과 시험의 부담이 없는 초등학교에서 과업을 실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된 응답일 수 있다. 소수의 설문 응답 교사들과 대화하여 본 결과, 교사들은 고학년 학생일수록 교사중심의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 학습자는 과업 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고학년에게 적합한 과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일부 교사는 저학년 학생이지만 너무나 영어의 기초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아예 과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우 초보적인 언어능력을 가진 학습자에 맞는 다양한 과업 유형에 대해 교사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0은 과업 기반 수업이 어느 수준의 학습자에게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이다

**표 10**  
언어수준별 과업 활용 효과의 차이

순위	문항 내용	평균	초임 교사	경력 교사	t	p	공교육	사교육	t	p
1	중급에 효과가 크다	3.58	3.63	3.53	.67	.50	3.67	3.53	.85	.39
2	초급에 효과가 크다	3.41	3.26	3.56	-1.48	.14	3.54	3.34	.93	.35
3	고급에 효과가 크다	3.35	3.23	3.47	-1.12	.26	3.46	3.30	.69	.48
4	효과가 미미하다	2.04	2.09	2.00	.44	.65	2.13	2.00	.62	.53

학습자의 언어 능력별 효과성에 대한 응답 반응은, 중급-초급-고급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학년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급 및 초급 정도의 학습자에게 과업 활용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급의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과업의 개발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1은 과업 활동 시 이상적인 모듈의 크기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11**  
과업 활용 시 이상적인 집단의 크기

순위	문항 내용	평균	초임 교사	경력 교사	t	p	공교육	사교육	t	p
1	그룹 활동	3.34	3.29	3.39	-.50	.61	3.46	3.28	.84	.40
2	짝 활동	3.31	3.34	3.28	.33	.74	3.21	3.36	-.74	.46
3	개인 활동	2.82	2.60	3.03	-1.94	.05	2.79	2.83	-.16	.87

전체적으로는 그룹 활동, 짝 활동, 개인 활동의 순서로 이상적인 과업 실행이 가능하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초임교사와 사교육 교사의 경우 짝 활동이 더욱 이상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마도 이들 교사들은 그룹 활동 수업 시 학생들이 지나치게 떠들거나 주의가 산만해지는 등의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다소 힘든 까닭에 이러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그룹 활동을 관리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사 훈련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3. 과업 활용 실현의 어려움

다음의 표 12는 과업 활동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12**  
과업 활동 실현이 어려운 이유

순위	문항 내용	평균	초임 교사	경력 교사	t	p	공교육	사교육	t	p
1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함	4.24	4.14	4.33	-1.21	.23	4.08	4.32	1.42	.15
2	다수의 과업이 필요함	4.13	4.03	4.22	-1.35	.18	4.08	4.15	-.42	.67
3	정해진 진도상 어려움	4.00	3.86	4.14	-1.54	.12	3.96	4.02	-.32	.74
4	준비 시간의 부족	3.75	3.54	3.94	-2.23	.02*	3.67	3.79	-.56	.57
5	학생 수 통제의 어려움	3.69	3.31	4.06	-3.75	.00*	4.13	3.47	3.06	.00*
6	교사의 노력부족	3.48	3.43	3.53	-.48	.63	3.46	3.49	-.14	.88
7	입시 중심의 교육	3.38	3.26	3.50	-.95	.34	3.46	3.34	.43	.66
8	교재의 과제가 비현실적	3.21	3.14	3.28	-.64	.52	3.33	3.15	.83	.40
9	낮은 상대적 교육 효과	3.11	2.91	3.31	-2.10	.03*	3.25	3.04	1.03	.30
10	학생의 낮은 참여도	3.09	2.83	3.34	-2.59	.01*	3.63	2.80	4.20	.00*
11	활용 방안 이해 어려움	3.03	3.09	2.97	.57	.56	3.00	3.04	-.17	.86

\* =  $p < .05$

과업 활동이 어려운 이유로는 교사용 지도서의 부족 및 다양하지 않은 과업이 가장 큰 이유로 간주되었다. 뒤이어 진도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과업사용이 힘들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과업 수행 시 학생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항목이 뒤를 이었다.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및 입시 중심의 교육도 장애로 간주되었다. 교재 자체내의 과제가 비현실적이다 라는 비판이 뒤를 이었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과업 중심의 교육 효과 그리고 학생의 낮은 참여도 및 활용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아주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낮은 순위의 장애 요인으로 응답되었다. 경력 및 교육기관에 따른 집단간 응답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응답은 학생수 통제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라는 항목들이었다. 이들 항목들에 대하여 경력 교사 및 공교육의 교사들이 초임교사 및 사교육의 교사들 보다 장애가 높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경력 교사들은 준비시간의 부족과 낮은 상대적 교육 효과 라는 항목에 대하여 초임교사들 보다 장애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과업 중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 교과서나 교재에 사용 가능한 다양한 과업을 제시하고 교사용 지도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설문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둘째, 많은 현직 교사들이 교과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적고, 다양한 과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주어진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진도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업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의사소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주목 되었다. 셋째,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서 학생통제가 어려운 점이 과제 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항에 있어 공교육 교사와 경력 교사가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공교육의 학급당 학생 수가 의사소통 위주의 과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넷째, 과업을 활용한 수업 시 학생들의 이해력과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공교육 교사와 경력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도의 동의하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경력 교사들은 준비시간의 부족과 낮은 상대적 교육 효과 라는 항목에 대하여 더 높은 동의하는 정도의 응답을 하였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주관식 문항을 분석하여 본 결과,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 수와 학생 수준의 큰 편차 등을 요인으로 들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 수준 편차 등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준별 학습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수준별 학급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능력별로 주제는 같지만 다른 종류의 과업을 해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한 학급 내에서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직 영어 교사들이 과업 기반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교실 수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공교육과 사교육 기관별, 교수 경력별로 활용도와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교육 현장에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교육 기관과 교육 경력을 가진 서울, 경기 지역의 현직 영어 교사 71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과업 기반 수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고, 교사의 현장 연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수업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언어 기능 중, 의사소통의 핵심이 되는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과업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양한 과업의 종류 중, 교사들이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과업은 의사소통 활동과 관련된 정보 교환, 토론 등의 과업이었다. 교사들은 과업 기반 수업이 유의미한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저학년과 중급, 초급 수준의 영어 학습자에게 과업 활용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과업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공교육 기관 근무 교사와 경력자 교사들이 공통 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음과 학생 수준의 편차 등을 지적하였다. 영어 수업에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수준별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과업 기반 수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할 수 있겠다. 우선 과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교사들이 교재에 대한 불만, 학급당 다수의 학생수, 학생 수준의 문제에 대한 점들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첫째, 효과적인 영어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를 더욱 줄여서, 교사가 효율적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과업 기반 수업을 완수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수준별, 언어 기능별 사용할 수 있는 과업의 종류와, 활용 방법, 수업 지도안 작성 등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련 자료가 주어진다면 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얻고 과업을 수업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학생들의 과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수업 이전에 학습자의 요구 분석, 흥미도 조사, 언어 능력 파악을 철저히 한 후에 수업 목표와 과업의 유형을 선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다양한 과업을 사용하되, 과업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배당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과업 기반 수업 이후 적정성을 교사가 스스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업을 다양한 학습자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섯째, 초임교사는 경력교사로부터 학급 운영에 관한 지도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경력 교사 역시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교재, 수업 활동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과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교사 재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교사 스스로도 과업 기반 수업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해 타 교사의 수업 지도안 고찰, 수업 참관, 교사 재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대한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 경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과업 기반 수업의 개념이나 특징 또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활용 실태와 이들이 보는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실제 과업 기반 교수 방법 개선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된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 참관을 통하여 과연 교사들이 과업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초등과 중·고등의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상 과업수행에 대한 인식이나 어려움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과 중고등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도 제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차후에 통계적인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하여 지역별, 경험별 교사들의 과업 활용 실태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한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 될 것이고 보다 타당성 있으며 효용성 높은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정렬, 권영선. (2004). 모둠 구성 차이에 따른 ICT 활용 과제기반 중학교 영어 수업의 효과.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4), 319-342.
- 김해동. (2005). 영어 교재의 과제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3), 191-218.
- 박영예, 이윤. (2000). *초등영어 수업의 길잡이*. 서울: 문진미디어
- 이완기. (2001). *초등영어 게임 101*. 서울: 문진미디어.
- 이혜경, 이재현. (2002). 과업 중심의 상호 협력 학습이 초등영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초등영어교육*, 8(2), 214-232.
- 황미정, 차경애. (2006). STAD 협동 학습이 초등학생의 듣기,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12(2), 116-125.
- Berwick, R. (1990). *Task variation and repair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Kobe, Japan: Kobe University of Commerce.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 Essex: Longman
- Crookes, G., & Rulon, K. (1985). *Incorporation of corrective feedback in native speaker/non-native speaker conversation* (Tech. Rep. No. 3). Honolulu, HI:

- University of Hawai'i,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Second Language Classroom Research.
-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mer, J. (200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3rd ed.). Essex: Longman.
- Kim, Boo-Yeon. (2006). Analysis of task complexity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English Language Teaching, 18*(3), 69-88.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heimer, R. (1995, March). *Close the task: Improve the discourse*. Paper presented at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Long Beach, CA.
- McDonough, K., & Chaikitmongkol, W. (2007). Teachers' and learners' reactions to a task-based EFL course in Thailand. *TESOL Quarterly, 41*(1), 52-60.
- Nunan, D. (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maggio, A. (1993).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2nd ed.). Boston,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 Park, Minsun. (2004). Effects of task-based interactions in EFL classrooms. *English Language Teaching, 16*(4), 134-150.
- Prabhu, N. (1987). *Second language pedagogy: A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 Rodgers, T. S. (2001).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ehan, P. (1996). A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ask-based instruction. *Applied Linguistics, 17*, 38-62.
- Thornbury, S. (1999). *How to teach grammar*. Essex: Longman.
- Willis, J. (1996). *Task based learning*. Essex: Longman.

부록  
설문지<sup>1</sup>

[개인정보: 근무 교육기관과 교육경력]

1. 현재 영어를 어디에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고등학교 ③ 대안학교 및 자율학교 ④ 영어전문학원
- ⑤ 영어입시학원 ⑥ 과외, 공부방 및 기타

2. 영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도하셨나요?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③ 1년~3년 ④ 3년~5년 ⑤ 5년 이상

[과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현황]

3. 교실 수업 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4. 다양한 활동들을 인터넷 혹은 여러 교재에서 찾아서 참고하는 편이다.

[과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인식]

5. 영어 수업 시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영어교육에 효과적이며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6.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를 줄게 하고, 참여도도 낮아서 시간 낭비이다.

7. 교사가 학생들이 직접 영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8. 영어 교과서나 교재에 실린 활동들은 실제 교실 수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

9. 영어 교과서나 교재에 실린 활동들은 유익하지만 활용할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

[과업 활용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언어 기능 영역]

10. 과업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것 같은 영역은 듣기이다.

11. 과업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것 같은 영역은 말하기이다.

12. 과업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것 같은 영역은 읽기이다.

13. 과업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것 같은 영역은 쓰기이다.

14. 과업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것 같은 영역은 문법지도이다.

15. 위의 영역 중, 앞으로 가능하다면 \_\_\_ 영역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을 많이 사용해 보고 싶다.

-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문법

그 이유는? ( )

[과업의 종류 별로 실제 사용하는 정도]

16. 시각적 자료(TV, 그림, 차트, 인터넷 동영상 등)을 활용한 과업 사용

17. 청각적 자료(Audio Tapes, CD, Chant, Songs, Radio)를 활용한 과업 사용

18. 의사소통중심의 과업(토론, 정보교환, 역할극, 발표수업, 프로젝트) 사용

<sup>1</sup> 이곳의 설문지는 지면 제약상 설문지 목적, 응답 방식에 대한 안내 및 다음 문항들의 응답 척도는 삭제하고 편집하였음. 3번~15번, 24~49번은 동의하는 정도의 5점 척도, 17~22번은 빈도를 표시하는 정도의 5점 척도를 사용함.

19.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자료(Authentic Materials: 기차시간표, 초대장, 공연티켓, 쇼핑 브로셔, 신문 등)를 활용한 과업 사용
20.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사용
21. 교재에 나온 활동, 혹은 교사가 만든 활동을 학생들에게 과제로(일기쓰기, 이메일 보내기, 빈 칸 채우기, 퀴즈 등) 부여
22. 위의 활동 종류 중, 앞으로 가능하다면 \_\_\_\_를 사용한 활동들을 많이 시도해 보고 싶다.
  - ① 시각적 자료나 활동 ② 청각적 자료나 활동 ③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
  - ④ 실제생활에서 쓰이는 자료 ⑤ 다양한 게임 ⑥ 기타 ( )
 [과업 활용 시 이상적인 집단의 크기]
23. 교실 활동 시 두 명이 짝을 이루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4. 교실 활동 시 셋 이상의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5. 여럿이 모이면 분산되고 시끄러워서 혼자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과업 활용 시 학생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
26. 교실 활동 사용시 학생들의 지루함을 없애고 흥미를 돋우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27. 교실 활동 사용시 교사는 학생들의 실수를 더 잘 파악하고 정확성(Accuracy)을 높 이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28. 교실 활동 사용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억에 오래 남고, 유의미한 학습 (Meaningful Learning)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9. 교실 활동 사용시 학생들은 실제 선생님-급우 등과 의사소통 할 기회가 많아져 유 창성(Fluency)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30. 교실 활동 사용시 학생들은 타 그룹, 혹은 다른 그룹들과 경쟁심리로 더 열심히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학년별, 언어 수준 별에 따른 과업 활용 효과의 차이]
31. 교실 활동은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저학년에게 더 효과가 있다.
32. 교실 활동은 어느 정도 영어의 기초를 갖춘 중학교 고학년 혹은 고등학생에게 더 효과가 있다.
33. 교실 활동은 초급수준의 학습자에게 더 효과가 있다.
34. 교실 활동은 중급수준의 학습자에게 더 효과가 있다
35. 교실 활동은 고급수준의 학습자에게 더 효과가 있다
36. 교실 활동은 어떤 수준의 학습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과업 활동 실현이 어려운 이유]
37. 학교 혹은 학원의 정해진 진도, 커리큘럼 때문에 교실활동을 하기 어렵다.
38. 한 학급당 학생 수, 학생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교실활동을 하기 어렵다.
39. 영어교재에 실린 활동은 실제 활용하기 어렵고 비현실적이어서 활용하기 힘들다.
40. 교실활동의 중요성은 알지만 준비하는 과정, 시간의 부족으로 활용하기 힘들다.
41. 사실 어떤 활동이나 게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힌다.
42. 영어 교재나 교과서에 보다 사용가능하고 현실적인 활동을 많이 신는다면 학생들 을 지도하는 데 아주 유용할 것이다.

43. 교재에 실린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내하는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하다.
  44. 교실 활동을 활용해 보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낮았다. (특히, 효과가 떨어졌던 학급특성이나, 학년을 써주세요: )
  45. 교실활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만큼 실제 효과도(Effectiveness)는 높지 않은 편이다.
  46. 한국의 각종시험과 입시제도 등의 구조적인 이유로, 교실 활동을 사용하는 것보다, 교사 위주의 수업이 더 적합하다.
  47. 교사 스스로 영어를 의사소통에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을 개발, 준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 [기타의견 및 제언 (개방형 질문)]
48. 현재 사용하지거나 혹은 사용하셨던 영어 교재 중, 학생 중심 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었던 것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 )
  49. 학생들이 영어를 실생활에 활용하고 실력을 늘리는 면에 있어서, 다양한 교실 활동 활용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간단히 적어 주세요. ( )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

신성은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370-881 충청북도 상춘면 둔전리 173번지

Tel: (1-615) 972-9870/ H.P.: 010-3317-3119

Email: sung.e.shin@vanderbilt.edu

김해동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2) 2173-3017/ H.P.: 010-8448-3715

Email: khd@hufs.ac.kr

Received 15 December 2011

Revised 5 February 2012

Accepted 15 February 2012